

# 전주 도서관 여행 코스 다양해진다

### 7월부터 금암·인후·송천도서관·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여행 코스에 추가... 전국서 관심 뜨거워

‘책의 도시’ 전주의 이색 도서관들을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전주 도서관 여행이 다채로워진다.

전주시는 도서관의 인프라와 전주의 책문화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최근 전주 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매회 조기 마감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부터 여행 코스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22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 5개의 도서관을 깊이 있게 여행하는 구석구석 하루코스(주 1회)와 여행자들의 취향을 담은 쉬엄쉬엄 반일코스(주 2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공사를 마치고 전주 시민들의 책놀이터로 재개관한 송천·금암·인후도서관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1주일 동안 3개 시립도서관 이용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도서관 이용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신규 이용자 유입 및 도서관 이용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각 도서관별 진행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송천도서관 89.4%, 금암도서관 88.9%, 인후도서관 80.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하고 싶은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저자 초청 특강’이 선택됐다.

관을 여행 코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도서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여행코스 조정을 통해 여행자들의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총 48회에 걸쳐 434명이 참여했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과 전주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정책을 배우기 위해 올해 타 지역에서 방문한 기관 참여자가 246명에 달한다. 현재도 기관 프로그램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전국의 사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4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을 전주에서 개최해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하는 등 전국의 도서관 분야 관계자들도 전주의 도서관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지난달 전주교육지원

청 소속 초등학교 교장·교감·유치원장 190여 명이 전주 도서관 여행에 함께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는 사립 유치원 원장·공립 유치원 교사 220여 명이 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여행에 참여키로 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의 타 지역 참가자 비율은 지난 2월 5%에서 지난달 25%로 급증하는 등 도서관 여행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는 ‘도서관 여행 효과’를 거두고 있다.

친구와 함께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고양시 한 대학생은 “전주에 도서관 여행이 있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면서 “너무 멋진 전주의 도서관을 편안하게 여행하며 둘러볼 수 있어 매우 만족했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

부장은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전주시민의 도서관 문화, 책문화가 전국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도서관과 책이 시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며 나아가 전주의 도서관이 전주를 알리는 또 하나의 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도서관 여행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디지털 MZ세대 등 전주 도서관 여행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기도록 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행력자(인플루언서)와의 책여행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김들길 작가가 시민들을 만나며, JTBC 트래블러 구성작가 아반도주님(7월 6일)과 유지혜 작가(8월 30일)도 전주 도서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전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힘쓴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전주한지 활성화 기여 신협중앙회에 감사패

### 판로 개척·마케팅 등 적극 지원·홍보 펼쳐

전주시는 전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힘쓴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 기반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중앙회는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 가능한 지역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첫 번째 모델로 전주한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8년에는 전주시와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주한지협동조합 사무국 운영 지원 △전주한지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지 활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전주한지 전통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사업 운영 △전주한지문화축제 지원 등 한지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특히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에는 신협 임직원 100여 명이 자원봉사로 직접 참여해 유튜브 구독 홍보 이벤트와 어버이 축제 기념품 지원, 한지체험 부스 운영 등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나아가 전주한지 기반 지역특화 여행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전통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한지 체험 및 전주한지마을 관광 등 패키지 투어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문화 소외계층 999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는 계획도 잡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품격을 드높이고 한지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주한지의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신협중앙회 관계자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책놀이터로 변신한 ‘송천·금암·인후도서관’ 만족도 높아

### 전주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2% ‘만족’

올해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공사를 마치고 전주 시민들의 책놀이터로 재개관한 송천·금암·인후도서관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1주일 동안 3개 시립도서관 이용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도서관 이용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신규 이용자 유입 및 도서관 이용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각 도서관별 진행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송천도서관 89.4%, 금암도서관 88.9%, 인후도서관 80.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하고 싶은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저자 초청 특강’이 선택됐다.

공간별로는 인후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서재’와 ‘이음의 서재(2층 종합자료실)’가 98%로 가장 높았고, 금암도서관은 ‘트인마담(육상)’과 ‘지식마루(2층 일반자료실)’가 92%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송천도서관의 경우 ‘모두의 서재(2층 종합자료실)’이 91.5%로 가장 높았다.

도서관 방문객의 연령대는 송천도서관은 20대(35.8%), 금암도서관은 50대(29.2%), 인후도서관은 40대(27.6%)가 가장 많았으며, 세 곳 도서관 모두 여성 이용자의 비중이 높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관 시설과 프로그램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책놀이터로 변신한 금암도서관 2층 지식마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어진박물관, 실감형 전시콘텐츠와 함께 재개관

### 고해상도 실감미디어·프로젝션 3D맵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이 국보인 조선 태조어진 등 소장유물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실로 다시 태어났다.

전주시는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이 고해상도 몰입형 실감미디어 등 다채로운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 어진박물관 실감콘텐츠는 지난

2021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한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형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번엔 새로 채워지게 됐다.

실감콘텐츠는 어진박물관 전시실과 체험실 3개의 공간에 각각 △고해상도 몰입형 실감미디어 △프로젝션 3D맵핑 △인터랙티브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박물관 1층 태조어진실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초상: 어진모사’와 ‘일월오봉도의 사계는 각각 어진 모사 과정 타임랩스와 경기전 일월오봉도 속 다섯 봉우리 뒤편의 사계절이 실감미디어로 선보인다.

지하 1층 가마실의 경우 전시유물인 전주 한지로 제작한 어진 반차도 닥종이 인형 행렬과 태조어진 봉안

당시 사용한 가마들을 소재로 한 프로젝트 3D 맵핑쇼가 선보인다.

지하 1층 체험실에서는 얼굴인식 AI를 활용한 ‘나만의 어진만들기’와 체험자가 직접 반차도 속 캐릭터를 색칠해 완성하면 앞쪽 파노라마에 속으로 들어가 움직이는 ‘디지털 컬러링’ 체험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어진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오감으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실감형 전시콘텐츠를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제8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기 어르신 한궁대회’ 개최

### 35개 동 경로당서 참여 단체전·200여명 출전 남·여 개인전 운영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는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기 어르신 한궁대회’를 개최했다.

건전한 노후 여가생활의 새로운 체육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궁은 한국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를 결합시킨 스포츠로, 계절과 실내·

외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대회는 전주지역 35개 동 경로당에서 분회별로 남·여 각 1팀(남 3명, 여 2명)씩 참여해 기량을 겨룬 단체전과 200여 명이 출전하는 남·여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 결과 단체전 1위는 인후2동이 차지해 우승기와 상금을 차지했으며, 2위 여의동 3위 인후3동 4위 효자1동에겐 각각 시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남·여 개인전 1위는 인후1동 북병호씨와 인후3동 고정희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남자 개인전 2위와 3위는 중앙동 김홍규씨와 인후2동 김한술씨, 여자 개인전 2위와 3위는 호성동 김복금씨와 인후2동 이옥남씨로 각각 결정됐다.

전영배 지회장은 “한궁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동료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도시농업 이끔 전문가 40명 양성

### 전주농기센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가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제7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활동할 도시농업 전문가 40명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도시농업의 이해 △유형별 텃밭정원 조성 기술 △텃밭수업 교안 만들기 △텃밭 조성 실습 △병해충 진단과 방제법 △토종종자와 GMO △공존과 도시농업 △실내정원 조성

이론 △텃밭 정원 조성 실습 △도시농업 현장 교육 등 이론 51시간과 실습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들은 향후 도시농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농화화·화훼장식·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식물보호·조경·자연생태복원 관련) 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2017년 개정된 도시농업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 자격증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기술을 보급하고 관련 시설관리 등을 한다. 또 주말농장과 도시 텃밭 등을 관리하고 학교 텃밭 운영, 교육기관과 체험활동의 강사로도 될 수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심신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도시 농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도시텃밭, 치유농업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도시농업 관리자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북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학술우수기관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방사선종양학과가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주관으로 지난날 말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원신센터에서 열린 2022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주관의 학술우수기관상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됐으며, 당해년도 이전 3년 동안의 투고 논문편수를 회원 수로 나누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 시상하는 제도다.

전북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학술우수기관상이 시행된 첫 해인 2018년에 1회 학술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 2회째 학술우수기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과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주요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제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김윤상기자